

| 버스운수산업위원회 |

코로나19로 전체회의 4월로 연기



위원회는 발족 이후 제6차 전체회의('20. 1. 31.)까지 대의제인 버스운수업 공공성 강화, 운수종사자 인력 양성과 능력 개발, 버스교통의 서비스 및 안전성 제고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제7차 전체회의('20. 2. 19.)부터는 공익위원이 각 대의제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제안·토론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이신해 공익위원과 김도경 공익위원은 각각 버스 기본서비스 확보, 안전기준 강화 관련 잠정합의안을 발제하였다. 이신해 공익위원은 노·사의 의무로서 노선 폐지 또는 운행횟수 감소 시 합당한 대체방안의 마련을, 정부측의 의무로서 기본서비스 기준마련 및 재정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도경 공익위원은 운전종사자 연속휴식을 위한 종합적 제도개선, 안전운행 위협요인 근절제도 마련, 상시적·정기적 안전관리체계 구체화를 제안하였다.

본래 '20. 3. 11. 예정되었던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이에 대한 노·사·정의 견해를 청취하고 추가논의를 통해 잠정합의안을 구체화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전체회의를 4월 중으로 연기하고, 3월 중에는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